



## 免疫學의 발달로 疾病治療에 전기 마련

### 國際學會 가입하여 學術交流 활발히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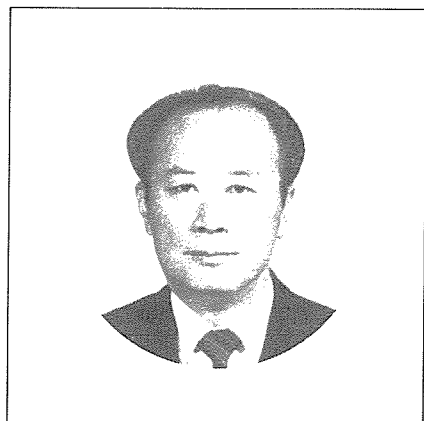
『現代醫學에서 免疫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癌을 비롯해서 臟器이식, 감염증, 알러지질환, 自家免疫疾患, 류머치스성 질환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DS 등 여러 가지 종양 및 질환 등의 病理機轉究明, 진단, 치료 및 豫後판정에 임상면역등의 역할이 크며 이것들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면역 등의 연구가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大韓免疫學會 尹楨九 회장(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제너(Jenner, Edward)의 중두연구를 시작으로 19C 말부터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면역학은 物理, 生化學등 기초학문의 발달과 함께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등을 이용한 세포배양기술등이 도입되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微生物學의 일 분과로 발전하기 시작한 면역학은 이제는 獨立된 醫學의 한 분과로 한문적인 체계를 이룩하여 현대의학에서 면역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강조한다.

尹회장은 文明이 발달하면서 각종 약물 남용과 공기오염 등으로 인해 면역이상으로 생기는 질환 즉 면역결핍 증후군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병은 한번 감염되면 면역기능이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AIDS는 아직까지 발병기전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尹楨九 회장

로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루트를 차단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AIDS는 전전한 성생활과 깨끗한 혈액을 수혈하게되면 발병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國民保健과 직결되는 만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입국하는 保菌者에 대한 조직적인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尹회장은 보균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국민들을 감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國民들에 대한 홍보교육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각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尹회장은 또 현재까지 완전퇴치가 어려운 癌의 완전정복도 암면역학의 발달로 금세기 말경

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암치료는 현재까지 발달된 수술과 방사선 및 화학요법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형편이므로 면역요법에 크게 기대를 걸게 되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수술이나 치료후 재발의 방지 및 생명연장을 위하여 면역요법이 좋은 치료효과를 내고 있는데 암면역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암의 완전정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머지않은 장래에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성공율을 보이고 있는 각종 臟器移植은 이식면역학의 발달로 질병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尹회장은 이제 각막이식은 널리 이용되고 있고 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좋은 치료방법이 되었으며 심장, 간장이식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만간 타조적이나 장기의 이식도 임상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나 장기의 이식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이식된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조직적 합성 항원에 대한 수여자의 면역반응(거부반응)과 이의 억제인데 이 거부반응을 안전하게 억제할 수 있다면 어느 조직이나 장기의 이식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다.

『이제 우리나라도 면역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해마다 전공하려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합니다. 하지만 국제학회 및 저명학술지에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기회가 많지 않고 실험연구의 기본인 實驗動物의 공급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좋은 실험결과가 나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험동물에 관한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공급체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잭슨 연구소나 불란서의 CNRS와 같이 실험동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기초며 역학이 활성화됨으로써 임상면역학과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회가 앞장서서 기초면역학과 임상면역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보다 나은 연구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면역학의 학술적인 연구와 면역병의 예방및 치료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74년 7월 설립된 大韓免疫學會는 13년이라는 짧은 연륜 속에서도 기초 및 임상 의학계 뿐만 아니라 치의학, 수의학, 약학 및 생물학계 학자까지도 폭넓게 참여하는 3백여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보유한 학회로 성장, 그동안 면역학 심포지움을 비롯 개업의를 위한 연수교육, 서울과 지방에서의 학술발표회 개최, 학회지 발간, 외국석학초청 특강실시 등으로 면역학의 학문적연구 및 임상적 응용 등에 이바지 해 왔다고.

『올해에는 최신정보교류 및 자료교환 등을 위해 국제면역학회 가입에 힘쓰는 한편 회원들이 발표하는 우수논문들이 국제회의 및 저명학술지에 보다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쓸 작정입니다』尹회장은 올 8월말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면역학회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문제가 심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다.

尹회장은 끝으로 현대의학에서 면역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면역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면역학을 중심으로 한 醫學발전과 國民保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權光仁記)